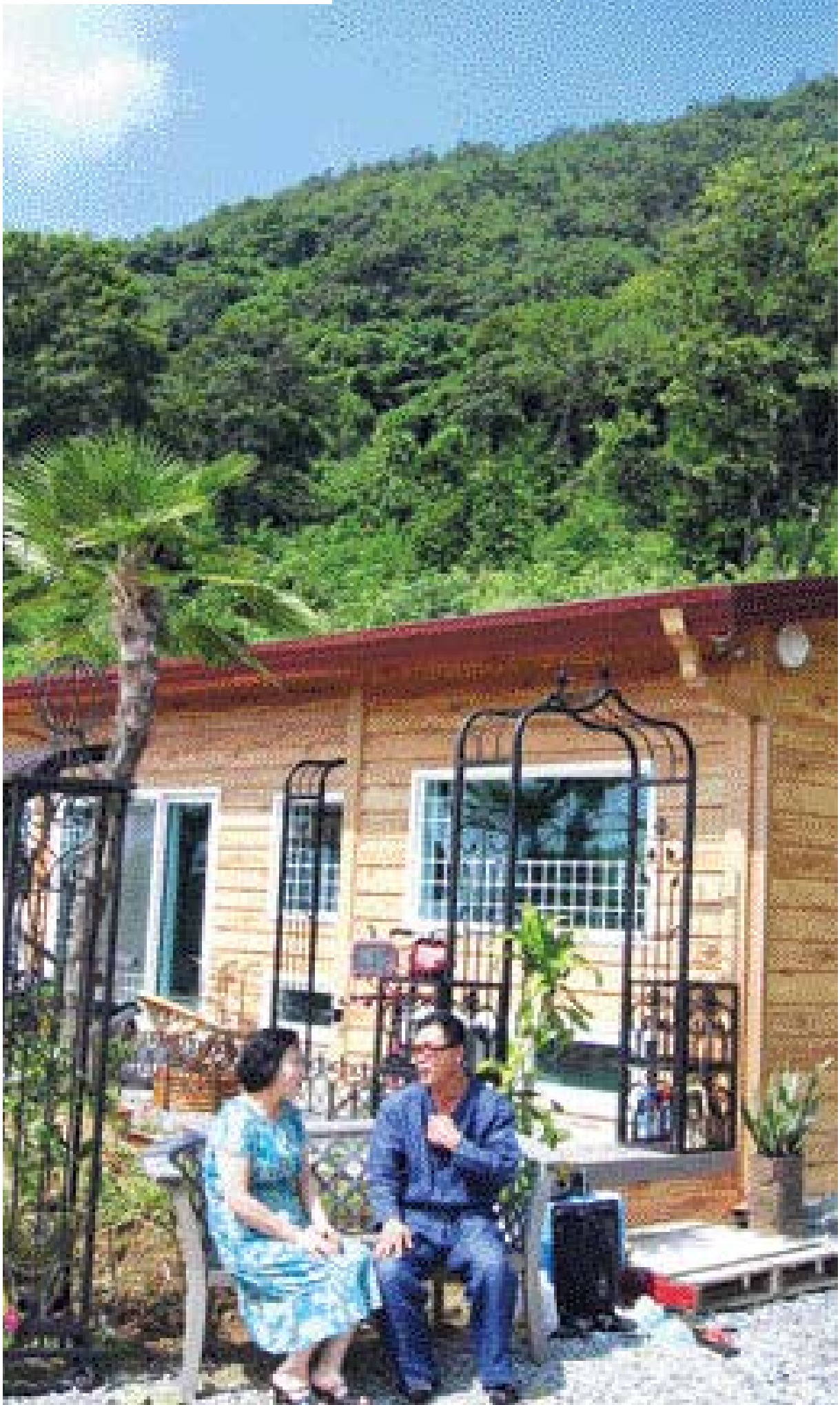


채광 고려 동남향 설계 ... 해돋이 감상 일품



손정태·이길례 부부가 집들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앞으로 가족단위 휴식 및 체험농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 함평군 대동면 손정태·이길례 부부 황토집

함평읍내에서 2km 떨어진 대동면 향교리. 함평~나산을 잇는 국도 24호선에서 벗어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산길을 따라 500여m 올라가다 보면 산중턱에 손정태(57)·이길례(56)씨 부부가 살고 있는 황토집이 자리 잡고 있다.

황토집이라 해도 외벽이 불연재 판넬로 마감돼 있어 외견상 단층 목조주택으로 여겨진다. 벽 내부를 12cm가량 황토로 채웠고, 집 내부는 편백나무로 꾸며 피톤치드 향이 은은하게 풍긴다.

집은 단열과 채광을 고려해 동남향으로 지었다. 계절에 따라 자리를 바꿔 떠오르는 해돋이를 집안에서 감상할 수 있다. 게다가 고산봉 줄기인 뒷산에 오르면 해남이와 함께 함평 읍내, 멀리 함평만이 내려다보인다.

봄철이면 산에서 나는 참취와 두릅순 등을 채취해 나물로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서울에서 농산물 무역업, 건축업 등을 하던 손씨 부부는 5년 전 노후를 대비해 향교리 일대 일야 4만9천587㎡(1만5천여평)를 매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대지 660㎡(200평), 건평 99㎡(30평) 규모의 집을 지어 입주했다. 시공의 모든 공정을 기술자 1명과 함께 직접 한 까닭에 건축비를 8천여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과 작은 방이 있고 좌우에 이층 침대가 2개씩 놓인 손님방이 딸린 5칸 구조이다. 현관 반대쪽 벽에는 특이하게 가로로 길쭉한 창문이 위 아래로 설치돼 있다. 겨울철에는 위쪽 창을 통해, 여름철에는 아랫창을 통해 바람이 들어온다. 한옥 건축에서 따온 나무의 통풍 비법이다.

광주 출신인 손 씨는 "함평은 호수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공기가 좋고, 경기도·강원도에 비해 난방비가 적게 들고, 평강도 찬 이점을 갖추고 있어 자리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집안에는 이국적인 2m크기의 열대 야자수 15그루가 심어져 있다. 화단에 심어진 꽃들 사이로 긴꼬리제비나비와 박각시가 바삐 오간다. 집안



한옥건축에서 응용한 통풍시스템.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

집내부 편백나무로 꾸며 피톤치드 향 은은 계절따라 바람 방향 다른 통풍 창문 만들어 2m 열대 야자수 15그루 이국적 향기 물씬

에는 각각 3만3천여㎡(1만평)의 넓직한 터를 닦아 두었다. 앞으로 돼지고기를 특색있게 요리하는 레스토랑을 비롯해 인라인스케이트 등 운동과 채소도 가꾸고, 민박도 할 수 있는 가족단위 휴식 및 체험농장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 '나무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우겠다'는 생각에서 빈터 테두리를 따라 매실나무와 감나무, 석류나무, 가시오가피, 녹차 등을 심었다. 그러나 영농기술을 배우기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 문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전원생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찾을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손씨 부부는 사업을 통해 형성된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지역 특산물 판매 중계에도 적극적이다. 품목은 주로 한우와 방호박, 함평 생산자와 서울지역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대폭 생략돼 판로확보와 저렴한 구매 등 서로 윈-윈할 수 있었다.

손 씨는 "전원생활이란 것이 나만 즐겁게 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지에서 온 전원생활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다면 농촌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황금박쥐·먹황새 서식 자연생태계 보고

■ 함평군 대동면은

함평군 중심부에 위치한 대동면은 '황금 박쥐'와 '먹황새(사진)'가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고산봉(359m)에는 천연기념물 제 452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동물 1호로 지정된 '황금박쥐'(학명 붉은박쥐)가 살고 있으며, 116만8천200㎡ 규모의 대동 상수원에는 먹황새(천연기념물 제 200호), 비오리, 검독수리(천연기념물 제 243호) 등이 겨울을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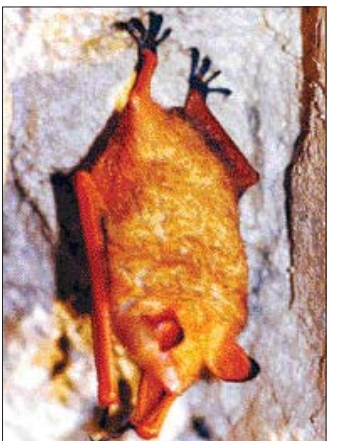
함평군은 지난 1999년 '황금박쥐'가 발견된 이

후 국내 유일의 집단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고산봉 일대 891만㎡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향교리의 팽나무와 느티나무숲은 천연기념물 제 108호로 지정돼 있다. 향교리에는 수령 350여 년 정도의 팽나무 10그루, 느티나무 15그루, 개서어나무 52그루, 푸조나무·곰솔·회화나무·개잎갈나무가 각각 1그루씩 자라고 있다.

한편 함평군은 운교리에 나비·곤충·우리 꽃 등이 어우러진 '자연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0월 말 '국향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께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합니다. 국제약품은 오로지 생명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비타민 B1, B2, B6, B12, 엽산, 셀레늄, 인오신, 노년기
- 동맥 경화증 예방, 미용성
- 당뇨, 고지혈증 예방, 체중 조절, 주근깨 예방, 피부노화 방지, 비염 예방
- 알코올성 간염 및 흡연자 다음 증상의 완화: 비만, 위궤양, 위식도 역류성 질환, 소화장애

아연의 보급
*서울특별시(가)국대약품 제조(제)001(가)·(제)001(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com